

굿네이버스 전남서부지부, 초등생에 '놀봄상자'



굿네이버스 전남서부지부(지부장 배준열)와 전남서부지부 분사무소(소장 유기용)는 최근 전남경찰청, 신안교육청과 함께 확산도 초등생 62명에 '놀봄상자'를 전달했다. <굿네이버스 전남서부지부 제공>

이정배씨, 재광 완도군 금당면향우회장 취임



이정배 지형건설 회장(가운데)이 제23대 재광 완도군 금당면향우회장에 취임했다. 이 회장은 지난 31일 광주 라마다호텔에서 취임식을 갖고 금당 섬마을축제에 500만원, 금당노인회에 3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고 취임 축하로 받은 쌀(20kg) 54포를 금당면에 기부했다. <금당면향우회 제공>

재광해남군향우회, 김우열 제34대 회장 선출



재광해남군향우회는 지난달 31일 광주 서구 라페스타워딩홀에서 제40차 정기총회를 열고 제34대 회장에 김우열(현대아미스 대표) 향우를 선출했다. <재광해남군향우회 제공>

농협 전남본부 '육포데이' 장흥 토요시장서 판촉



농협 전남본부(본부장 김석기)는 (사)나눔축산운동본부-장흥축협(조합장 김재은)-농협 장흥군지부(지부장 강형구)와 7주년 '육포데이'를 (6월 4일) 앞두고 장흥 토요시장에서 홍보활동을 펼쳤다. <전남농협 제공>

“애들아, 인터넷보다 재미있는 공원에서 놀자”

아이들과 방과후 놀이... 공원 활동가 안은주 씨

5년전 전래놀이 자격증 취득
서구 놀이프로그램 참여
근린·시민공원 등 3인 1조 활동
긴줄넘기·기차놀이 등 다양

“아이들이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게 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공간과 실의 놀이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안은주(여·67·광주시서구화정동·사진)씨는 “공원활동가”다. 공원활동가는 지난해 광주 서구가 시작한 ‘우리동네 공원에서 놀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그는 지난해 5월부터 그는 일요일과 월요일을 제외한 매주 오후 아이들과 함께 놀이를 하고 있다. 파죽간호사 출신인 안씨는 22살이던 1974년 독일 마인츠로 건너갔다. 4년 동안 독일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귀국했다.

주부로 지내던 안씨는 지난 2013년 우연히 자신의 아파트 주민회에서 진행했던 전래놀이 자격증 강의를 들었고 2014년 자격증을 취득했다.

처음에는 아파트에 살던 아이들을 대상으로 전래놀이를 가르쳤다. 안씨가 진행하는 전래놀이 프로그램은 입주민 사이에 입소문이 퍼졌고, 안씨는 지난해 5월부터 광주 서구청 공원복지과의 제안으로 공원활동가로 봉사와고 있다. 구청은 안씨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의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는 서구 내 염주근린공원·신암근린공원·쌍학어린이공원·치평어린이공원·상무시민공원·풍암생활체육공원 등에서 3인 1조의 공원활동가가 배치됐다. 공원활동가는 주 4회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아이들과 다양한 놀이 활동을 하고 있다. 무더운 7·8월에는 잠시 쉬었다가 9월부터 11월 다시 시작한다.

아이들은 공원활동가의 도움을 받아 긴줄넘기, 기차놀이, 딱지치기 등 전통놀이와 무더운 날에는 장기, 바둑 등 다양한 놀이를 하고 있다.

상무시민공원과 풍암생활체육공원에서 토요일(격주)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인기가 많아 가족 단위로 60여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다.

안씨는 “우리동네 공원에서 놀자” 프로그램의 장점으로 다양한 연령대가 한 곳에 모여 어

울릴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요즘 아이들을 보면 피서방에 가거나 집에서 혼자 놀기 때문에 뛰어놀 기회가 거의 없다”면서 “우리동네 공원에서 놀기 프로그램에 참가한 아이들은 다양한 연령대의 친구들과 서로 이견 조율 등을 통해 배려하며 노는 법을 자연스럽게 터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씨는 놀이문화 실종과 뛰어놀 공간이 많지 않다고 아쉬워한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놀이문화 자체를 깎아내리는 세태도 안타깝다고 한다. 그는 “독일에서 생활을 생각해보면 마을마다 축구장이 있어 매일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 놀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아이들이 마음놓고 놀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이들이 놀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나 지자체 등이 장소를 제공하고 놀이에 대한 투자와 함께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아이와 어른 모두가 마음껏 뛰어놀며 다치지 않도록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씨는 “우리동네 공원에서 놀자” 프로그램의 장점으로 다양한 연령대가 한 곳에 모여 어

울릴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요즘 아이들을 보면 피서방에 가거나 집에서 혼자 놀기 때문에 뛰어놀 기회가 거의 없다”면서 “우리동네 공원에서 놀기 프로그램에 참가한 아이들은 다양한 연령대의 친구들과 서로 이견 조율 등을 통해 배려하며 노는 법을 자연스럽게 터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씨는 놀이문화 실종과 뛰어놀 공간이 많지 않다고 아쉬워한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놀이문화 자체를 깎아내리는 세태도 안타깝다고 한다. 그는 “독일에서 생활을 생각해보면 마을마다 축구장이 있어 매일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 놀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아이들이 마음놓고 놀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이들이 놀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나 지자체 등이 장소를 제공하고 놀이에 대한 투자와 함께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아이와 어른 모두가 마음껏 뛰어놀며 다치지 않도록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씨는 “우리동네 공원에서 놀자” 프로그램의 장점으로 다양한 연령대가 한 곳에 모여 어

울릴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요즘 아이들을 보면 피서방에 가거나 집에서 혼자 놀기 때문에 뛰어놀 기회가 거의 없다”면서 “우리동네 공원에서 놀기 프로그램에 참가한 아이들은 다양한 연령대의 친구들과 서로 이견 조율 등을 통해 배려하며 노는 법을 자연스럽게 터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씨는 놀이문화 실종과 뛰어놀 공간이 많지 않다고 아쉬워한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놀이문화 자체를 깎아내리는 세태도 안타깝다고 한다. 그는 “독일에서 생활을 생각해보면 마을마다 축구장이 있어 매일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 놀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아이들이 마음놓고 놀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이들이 놀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나 지자체 등이 장소를 제공하고 놀이에 대한 투자와 함께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아이와 어른 모두가 마음껏 뛰어놀며 다치지 않도록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씨는 “우리동네 공원에서 놀자” 프로그램의 장점으로 다양한 연령대가 한 곳에 모여 어

울릴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요즘 아이들을 보면 피서방에 가거나 집에서 혼자 놀기 때문에 뛰어놀 기회가 거의 없다”면서 “우리동네 공원에서 놀기 프로그램에 참가한 아이들은 다양한 연령대의 친구들과 서로 이견 조율 등을 통해 배려하며 노는 법을 자연스럽게 터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씨는 놀이문화 실종과 뛰어놀 공간이 많지 않다고 아쉬워한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놀이문화 자체를 깎아내리는 세태도 안타깝다고 한다. 그는 “독일에서 생활을 생각해보면 마을마다 축구장이 있어 매일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 놀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아이들이 마음놓고 놀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이들이 놀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나 지자체 등이 장소를 제공하고 놀이에 대한 투자와 함께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아이와 어른 모두가 마음껏 뛰어놀며 다치지 않도록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씨는 “우리동네 공원에서 놀자” 프로그램의 장점으로 다양한 연령대가 한 곳에 모여 어

울릴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요즘 아이들을 보면 피서방에 가거나 집에서 혼자 놀기 때문에 뛰어놀 기회가 거의 없다”면서 “우리동네 공원에서 놀기 프로그램에 참가한 아이들은 다양한 연령대의 친구들과 서로 이견 조율 등을 통해 배려하며 노는 법을 자연스럽게 터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씨는 놀이문화 실종과 뛰어놀 공간이 많지 않다고 아쉬워한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놀이문화 자체를 깎아내리는 세태도 안타깝다고 한다. 그는 “독일에서 생활을 생각해보면 마을마다 축구장이 있어 매일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 놀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아이들이 마음놓고 놀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이들이 놀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나 지자체 등이 장소를 제공하고 놀이에 대한 투자와 함께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아이와 어른 모두가 마음껏 뛰어놀며 다치지 않도록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씨는 “우리동네 공원에서 놀자” 프로그램의 장점으로 다양한 연령대가 한 곳에 모여 어

울릴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요즘 아이들을 보면 피서방에 가거나 집에서 혼자 놀기 때문에 뛰어놀 기회가 거의 없다”면서 “우리동네 공원에서 놀기 프로그램에 참가한 아이들은 다양한 연령대의 친구들과 서로 이견 조율 등을 통해 배려하며 노는 법을 자연스럽게 터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씨는 놀이문화 실종과 뛰어놀 공간이 많지 않다고 아쉬워한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놀이문화 자체를 깎아내리는 세태도 안타깝다고 한다. 그는 “독일에서 생활을 생각해보면 마을마다 축구장이 있어 매일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 놀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아이들이 마음놓고 놀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이들이 놀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나 지자체 등이 장소를 제공하고 놀이에 대한 투자와 함께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아이와 어른 모두가 마음껏 뛰어놀며 다치지 않도록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씨는 “우리동네 공원에서 놀자” 프로그램의 장점으로 다양한 연령대가 한 곳에 모여 어

울릴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요즘 아이들을 보면 피서방에 가거나 집에서 혼자 놀기 때문에 뛰어놀 기회가 거의 없다”면서 “우리동네 공원에서 놀기 프로그램에 참가한 아이들은 다양한 연령대의 친구들과 서로 이견 조율 등을 통해 배려하며 노는 법을 자연스럽게 터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씨는 놀이문화 실종과 뛰어놀 공간이 많지 않다고 아쉬워한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놀이문화 자체를 깎아내리는 세태도 안타깝다고 한다. 그는 “독일에서 생활을 생각해보면 마을마다 축구장이 있어 매일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 놀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아이들이 마음놓고 놀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이들이 놀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나 지자체 등이 장소를 제공하고 놀이에 대한 투자와 함께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아이와 어른 모두가 마음껏 뛰어놀며 다치지 않도록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씨는 “우리동네 공원에서 놀자” 프로그램의 장점으로 다양한 연령대가 한 곳에 모여 어

울릴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요즘 아이들을 보면 피서방에 가거나 집에서 혼자 놀기 때문에 뛰어놀 기회가 거의 없다”면서 “우리동네 공원에서 놀기 프로그램에 참가한 아이들은 다양한 연령대의 친구들과 서로 이견 조율 등을 통해 배려하며 노는 법을 자연스럽게 터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씨는 놀이문화 실종과 뛰어놀 공간이 많지 않다고 아쉬워한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놀이문화 자체를 깎아내리는 세태도 안타깝다고 한다. 그는 “독일에서 생활을 생각해보면 마을마다 축구장이 있어 매일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 놀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아이들이 마음놓고 놀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이들이 놀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나 지자체 등이 장소를 제공하고 놀이에 대한 투자와 함께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아이와 어른 모두가 마음껏 뛰어놀며 다치지 않도록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씨는 “우리동네 공원에서 놀자” 프로그램의 장점으로 다양한 연령대가 한 곳에 모여 어

울릴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요즘 아이들을 보면 피서방에 가거나 집에서 혼자 놀기 때문에 뛰어놀 기회가 거의 없다”면서 “우리동네 공원에서 놀기 프로그램에 참가한 아이들은 다양한 연령대의 친구들과 서로 이견 조율 등을 통해 배려하며 노는 법을 자연스럽게 터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씨는 놀이문화 실종과 뛰어놀 공간이 많지 않다고 아쉬워한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놀이문화 자체를 깎아내리는 세태도 안타깝다고 한다. 그는 “독일에서 생활을 생각해보면 마을마다 축구장이 있어 매일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 놀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아이들이 마음놓고 놀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이들이 놀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나 지자체 등이 장소를 제공하고 놀이에 대한 투자와 함께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아이와 어른 모두가 마음껏 뛰어놀며 다치지 않도록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씨는 “우리동네 공원에서 놀자” 프로그램의 장점으로 다양한 연령대가 한 곳에 모여 어

울릴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요즘 아이들을 보면 피서방에 가거나 집에서 혼자 놀기 때문에 뛰어놀 기회가 거의 없다”면서 “우리동네 공원에서 놀기 프로그램에 참가한 아이들은 다양한 연령대의 친구들과 서로 이견 조율 등을 통해 배려하며 노는 법을 자연스럽게 터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씨는 놀이문화 실종과 뛰어놀 공간이 많지 않다고 아쉬워한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놀이문화 자체를 깎아내리는 세태도 안타깝다고 한다. 그는 “독일에서 생활을 생각해보면 마을마다 축구장이 있어 매일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 놀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아이들이 마음놓고 놀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이들이 놀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나 지자체 등이 장소를 제공하고 놀이에 대한 투자와 함께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아이와 어른 모두가 마음껏 뛰어놀며 다치지 않도록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은주 씨

안은주(여·67·광주시서구화정동·사진)씨는 “공원활동가”다. 공원활동가는 지난해 광주 서구가 시작한 ‘우리동네 공원에서 놀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그는 지난해 5월부터 그는 일요일과 월요일을 제외한 매주 오후 아이들과 함께 놀이를 하고 있다. 파죽간호사 출신인 안씨는 22살이던 1974년 독일 마인츠로 건너갔다. 4년 동안 독일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귀국했다. 주부로 지내던 안씨는 지난 2013년 우연히 자신의 아파트 주민회에서 진행했던 전래놀이 자격증 강의를 들었고 2014년 자격증을 취득했다. 처음에는 아파트에 살던 아이들을 대상으로 전래놀이를 가르쳤다. 안씨가 진행하는 전래놀이 프로그램은 입주민 사이에 입소문이 퍼졌고, 안씨는 지난해 5월부터 광주 서구청 공원복지과의 제안으로 공원활동가로 봉사와고 있다. 구청은 안씨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의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는 서구 내 염주근린공원·신암근린공원·쌍학어린이공원·치평어린이공원·상무시민공원·풍암생활체육공원 등에서 3인 1조의 공원활동가가 배치됐다. 공원활동가는 주 4회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아이들과 다양한 놀이 활동을 하고 있다. 무더운 7·8월에는 잠시 쉬었다가 9월부터 11월 다시 시작한다. 아이들은 공원활동가의 도움을 받아 긴줄넘기, 기차놀이, 딱지치기 등 전통놀이와 무더운 날에는 장기, 바둑 등 다양한 놀이를 하고 있다. 상무시민공원과 풍암생활체육공원에서 토요일(격주)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인기가 많아 가족 단위로 60여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다. 안씨는 “우리동네 공원에서 놀자” 프로그램의 장점으로 다양한 연령대가 한 곳에 모여 어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아이들이 공원에서 전래놀이인 대문놀이를 하고 있다.

삶과 소설로 DJ 정신 계승...송기숙 교수 '후광 학술상'

후광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해나 가지는 취지에서 제정된 후광 학술상 제12회 수상자로 송기숙(사진)전남대 명예교수가 선정됐다.

후광학술상 선정위원회(위원장 최정기 전남대 교수)는 송 명예교수를 수상자로 최종 선정하고 5일 전남대학교 개교 67주년 기념식에서 시상하기로 했다. 선정위는 “송 교수는 자신의 삶과 소설이라는 도구를 통해 한국 사회의 모순된 현실을 비판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실천하는 지식인’의 표상”이라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송 교수는 1973년부터 2000년까지 30여년간 전남대 국문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1978년 전남대 교수 10명과 함께 ‘국민교육헌장’을 비판한 ‘우리의 교육지표’를 발표해 긴급조치 위반으로 구속, 1년간 복역하면서 교수직까지 파면당하는 수난을 겪었다.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에도 학생수습 위원회에서 활동하다 내란죄를 적용받아 10개월을 복역했다.

그는 대학 복직 후 1987년 ‘5·18광주민주항쟁 사료전집’ 발간, 같은 해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약칭 민교협)’ 창립 및 초대

의장, 1994년 ‘민족문학작가회의’ 이사장, 1996년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설립 및 초대 소장 등을 지냈다. 후광학술상은 전남대가 민주·인권·평화의 실현을 위해 공헌한 세계 각지의 탁월한 연구자 및 연구단체에게 수여, 올해로 12번째 수상자를 배출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송기숙 교수

허완중·김재민·신해진·류제황 교수

전남대 용봉학술상 수상

전남대학교는 용봉학술상 제23회 수상자로 허완중, 김재민, 신해진, 류제황 4명의 교수를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허완중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고유한 한국 헌법학을 세우기 위해 헌법해석학에 뿌리를 두면서도 법철학과 법사학은 물론 사회학, 정치학을 비롯한 다른 인문사회과학의 성과도 포용하는 학술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김재민 교수(의과대학)는 보건복지부 지정 우울증 임상·중개연구센터 책임연구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우수한 연구를 진행해왔다. 240여편의 SCI 논문을 대부분 주저자로 발

표했고, 2018년에는 심장질환에 동반된 우울증 치료를 통한 심장 예후 개선 결과를 JAMA (IF 47.7) 등 최상위권 저널에 게재했다. 신해진 교수(인문대학)는 1999년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부임한 이래 70여권에 달하는 학술서적을 출간했다. 한국 문학사의 공백기인 17세기 민족수난기의 실기문헌을 꾸준히 발굴해 번역했다. 류제황 교수(치의학전문대학원)는 20여년간 ‘빠·관절 생활학 연구’를 통해 퇴행성관절염

및 골다공증의 발병기전을 규명하는데 연구력을 모아왔다. Nature, Cell, Nature Medicine 등 탁월한 업적을 쌓아왔고, 경조식 질환 분야의 다양한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용봉학술상은 교원의 연구의욕 고취와 대학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1997년 제정됐다. 시상식은 5일 전남대학교 개교기념일 기념식장에서 진행된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허완중 김재민 신해진 류제황

허완중 김재민 신해진 류제황

동신대 군사학과 졸업 강태호 소위 '국방장관상'

해병대 사관후보생 성적 1위

동신대학교 군사학과 졸업생이 제 126기 해군·해병대 사관 후보생 임관식에서 1위 성적으로 국방부장관상을 받았다. 3일 동신대에 따르면 최근 제126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서 동신대군사학과 졸업생(27) 강태호(23) 소위가 해병대 사관후보생 122명 중 1위 성적으로 국방부장관상을 받았다. 해병대 사관후보생들은 해군사관학교(2주)와 해병대학교육훈련단(9주)에서 11주 동안 체계적 교육훈련을 받으며 해병대 장교로서 사명감과 명예심, 군사 지식과 강인한 체력, 부대 지휘능력을 기른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강태호 소위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SC제일은행 빌딩 9층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33 FAX 062-222-4938, 222-4918

화촉

▲고윤홍(전 SK)·이경희씨 장남 두현군, 임길성(전 기업은행 부회장)·박연숙씨 장녀 지은양=8일(토) 오전 11시 광주시 서구 벽진동 제이아트웨딩홀 1층 아모레홀.

중친회

▲(사)전주이씨 대동중악원 광주·전남 지원(지원장 이달우) 이화월례회(회장 이동재)=11일(화) 오후 6시30분 지원회의실 062-225-5636. ▲재광원주이씨 중친회(회장 이병재)=14일(목) 오후 6시 만수식당 010-2664-7000. ▲(사)전주이씨 대동중악원 광주·전남 지원(지원장 이달우) 청년이화월례회(회장 이태웅)=18일(화) 오후 7시 지원회의실 062-225-5636. ▲(사)전주이씨 대동중악원 광주·전남 지원(지원장 이달우) 여성이화월례회(회장 이보희)=22일(토) 오전11시 지원회의실 062-225-5636.

알림

▲청소년전화062-1388=광주시청소년 상담복지센터 24시간 전화상담.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 사용할 경우 062-1366.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 상담&주간프로그램 운영=알코올, 인터넷, 도박,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대상 062-526-3370. ▲북구열린마음 상담센터 무료상담=정신건강&중독 무료상담(음주·우울·불안·스트레스·치매·인터넷)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가능 062-526-3370. ▲광주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중독 문제(알코올, 니코틴, 인터넷, 약물, 도박)로 고민하는 대상자와 가족 무료 상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062-413-1195. ▲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마음건강주치의운영=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를 통한 중독·자살·우울 등 매주 수·금요일 오후 2시~5시 무료상담 062-654-3802.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

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업관용품무료지원, 장례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습관성도박자 및 가족대상 전문상담 치료 및 병원위탁 무료 치료=성요한병원(6개월 무료입원 및 통원치료) 상담시간 월~토(오전 10시~오후 8시까지) 062-527-3400, 3403. ▲지역장애인 성인 주·야간보호 서비스 실시=월·금 오후 5시~9시 사랑마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열린 마음 상담센터=북구 5개 아파트 단지 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무료상담(우울, 불안, 치매, 스트레스, 알코올, 흡연, 약물, 도박, 인터넷 등) 062-525-1195.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방과 후 돌봄 이용안내=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보호·교육·정서지원·문화체험·식제공 등 제공 062-522-9976.

▲전남사회복지협의회 법률서비스 '법률휴대터' 무료 상담=민사·형사 소송 이전 법률상담과 법교육, 조력기관 연계 등 1차 법률서비스 지원 월·금 오전 10시 ~ 오후 5시 061-285-1161.

모집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돌봄봉사자=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만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062-232-4953. ▲한국범죄방지지도사 자격증 무료 취득=성별, 연령 제한 없음. 광주시 금남로 5가 169번길 호남본부 062-515-7521.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부모 사망, 이혼, 실직, 가출,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 기간 위탁할 인연 상담 062-351-1206.

부음

▲서양자님 별세, 최현배·은철·영철씨 모친상, 조상화·병설·한남숙씨 시모상, 발인 5일(수) 오전 7시30분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3분향소 062-231-8903.

Advertisement for Green Funeral Home (그린장례식장) featuring a table of obituaries and contact information. The table lists names, dates of death, and funeral services. Contact: 24시간 062-250-4455, www.그린장례식장.co.kr